

승리신문

The Seungni Shinmun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2026년 1월 1일 목요일

불 속에서 제련되는 강철과 같이 강인한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육십갑자기의 43번째 해로, 천간의 '병(丙)'은 강한 양의 불(陽火)로써 적색(赤色)을 상징하고 지지의 '오(午)'는 동물 중 활발하고 기세가 좋은 말(馬)을 뜻한다. 그러므로 2026년은 뜨거운 태양 아래 질주하는 '붉은 말', 즉 '적토마(赤兔馬)'의 해라고 할 수 있겠다.

적토마(赤兔馬)는 삼국지의 관우가 됐던 전설적인 명마로, 하루에 천 리를 달리는 기개와 용맹함을 상징한다. 2026년은 이러한 적토마의 기운처럼 빠른 변화와 강력한 돌파력이 사회 전반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리학적으로 병오(丙午)는 강한 '양인(羊刃)'의 기운을 가진다. 이는 칼을 든 장수와 같이, 결단력이 대단하지만 자칫하면 충돌이나 사고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인(羊刃)이란 양인살(羊刃殺)의 줄임말이다. 동양 사상에서는 무엇이든지 과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본다. 양인살(羊刃殺)은 물(物)이 극(極)에 이르면 악기(惡氣)를 발현한다는 논리에서 나온 살(殺)을 의미한다.

양은 신수(神獸)인데 뿐만 아니라 대상물을 들이받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양의 속성은 순한 것 같지만, 목표를 정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돌진한다. 긍정적으로 보면 성공을 향한 집념과 열정 그리고 목표 달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 만 부정적으로 보면, 자신의 목표 달성을



병오년 2026년을 기점으로 지구촌의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와 행복한 영성 시대를 연다

을 위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관성(官星)과 재성(財星)을 합리적으로 포용하여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열어나가야 하겠다.

중국 진나라 풍수 대가 곽박(郭璞)에서 시작된 현공풍수(玄空風水)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43년까지 20년 동안 9운(九運)으로 화(火)의 기운이 강하다고 한다. '9운(九運)리화(離火)'는 동양 명리학에서 '9운(九運)'과 '리화(離火)'가 결합된 개념으로, 2026년(병오년)에 해당하는 강한 불의 기운과 변화의 시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2026년 병오년, 화(火)의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 전기, 전자, 첨단 기술을 상징하며 IT·에너지·반도체의 비상(飛上)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K-POP, 드라마, 웹툰, 뷰티 등 K-컬처

역시 2026년에도 계속해서 세계적 영향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불기운이 강하면 힘을 더해지고 갈등 노출과 감정 격화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럴 때 일수록 물(水)의 지혜와 토(土)의 안정감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일의 추진에 있어서 지나친 과속보다 지속 가능한 속도 조절과 꾸준한 리듬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시기이다. 물(物)이 극(極)에 이르면 악기(惡氣)를 발현하는 시기임으로 인공지능과 같은 물질문명이 극에 달할수록 인간 내면의 정화를 위한 의지와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2026년은 불 속에서 제련되는 강철과 같이 강인한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병오년과 관련된 예언이 격암유록에 나온다. 격암유록 궁을론에는 윗줄 이에 벗대어 말한 《단동치기(檀東致基) 오묘일걸(五卯一乞)》이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 풀이하면 을묘(乙卯) 정묘(丁卯) 기묘(己卯) 신묘(辛卯) 계묘(癸卯, 2023년)로 오묘(五卯)가 되고 마지막에 걸(乞)= $1+2+3$ 이면 윗줄 넉동이 단동으로 풍쳐서 한 번에 윗줄이 끝나듯 계묘에서 ①갑진(2024년)+②을사(2025년)+③병오(2026년)로 판이 끝나는 것 이 된다.

격암유록에서 병오년 전후는 낡은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병오년을 기점으로 인류를 괴롭히던 원인 모를 병(凶禍)이 물러가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정화된 사람들이 살아남아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것이다. 2026년 이후에는 해인(海印)의 능력으로 물질 중심의 문명이 저물고 정신과 물질이 하나로 합쳐지는 영성 문명이 열릴 것이라는 예언을 기대해본다.

병오년(2026년)과 정미년(2027년)은 "오미(午未) 시대"로, 이때 깨어있는 인자들이 구원받고 즐거워질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이러한 격암유록의 예언은 시대 변화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로 예언의 실현 여부는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도 "隨時多變(수시다변)"되오리니 絶對預定(절대예정)될 수 없네"라고 말종운(末中運)에 명시되어 있다.*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완벽하고 조리 있는 설교를 할 수 없어



▲ 승리회보 제94호 1면 헤드라인 캡처
1987년 9월 5일 제4차 세계 전도 순방길에 오르신 이긴자 조희성님은 첫 도착지 미국 뉴욕에서 한 달 동안 체류하셨다. 그 당시 미국 뉴욕방송국 TKC(The Korean Channel)에서 조희성님은 "성경은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했다"라는 제목으로 2시간 분량에 해당하는

방송녹화를 성공리에 마쳤고, 2시간 간에 해당하는 방송녹화분량을 30분씩 4회로 편성하여 1차로 1987년 9월 27일에 TV방영되었고 2차는 10월 4일에 방영되었고 3차는 10월 11일, 4차는 10월 18일에 연재로 방영되었다.

당시 방송국에서 있었던 이긴자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밀씀] 여러분들이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신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신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염려하면서 살아본 예가 없습니다. 단상에 서면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말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염려하면서 단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항상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신이 이 사람 입에 말씀을 담아서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염려하면서 살아본 예가 없습니다. 단상에 서면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말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염려하면서 단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항상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신이 이 사람 입에 말씀을 담아서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관련 설교를 5면, 6면, 7면, 8면 전격 개재』

— TV방영 총 4회 중 최종회분 영문번역 —

이기는 삶

물처럼 현명하게

* 물이 갖는 칠덕(七德)

첫째,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謙遜)"

둘째,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智慧)"

셋째, 구정물까지 받아주는 "포용력(包容力)"

넷째,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融通性)"

다섯째, 바위도 뚫는 "인내(忍耐)와 끈기"

여섯째,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勇氣)"

일곱째,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大義)"

좋아하고 일에는 능숙함을 좋아하니

늘 때를 맞추어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오직 서로 다투지 않으니 힘들지 않느니라.

노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최상의 방법은 물처럼 사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흐르는 물은 유연하다. 물은 네모진 곳에 담으면 네모진 모양이 되고 세모진 그릇에 담으면 세모진 모양이 된다. 이처럼 물은 어느 상황에서도 본질을 변치 않으면서 순응한다.

물은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 물은 평상시에는 골이진 곳을 따라 흐르며 벼 이삭을 키우고 목마른 사슴의 갈증을 풀어준다. 그러나 한번 용트림하면 바위를 부수고 산을 무너뜨린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흐르다가 물이 마침내 도달하는 곳은 드넓은 바다이다.

사람도 이 물과 같이 모자지 않고 유연하게 다양한 사람을 너그럽게 포용하고 정의 앞에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대처하며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현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 한 조직의 리더라면 옹당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고 옳은 결정은 직원의 공으로 돌리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조그만 공을 가지고 부하 직원과 다룬다면 어찌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경축 46회
이슬성신절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2026년 1월 1일

인류는 하나, 누구든지 내 몸처럼